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中學生의 經濟價值觀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龍 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梁 榮 希

2003年 8月

濟州道 中學生의 經濟價值觀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朴 龍 垻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8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梁 榮 希

梁榮希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3年 8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抄錄>

濟州道 中學生의 經濟價値觀에 關한 研究

梁 榮 希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朴 龍 垈

본 연구는 제주도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경제가치관을 파악하여 향후 중학교 교육의 개선과 각종 학습 자료의 개발에 참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1,120명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SAS V8.1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중3학생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경제적 현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과 미래관에서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빈곤 계층 존속의 원인이나 가난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고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미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반면, 사회문제의 미래상은 매우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경제생활관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관에 있어서 대기업 제품은 무조건 좋은 것이더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합리적인 태도가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상당수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나, 경제 현안 및 문제의 이해의 부문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비율이 낮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긍정적인 경제가치관의 측면도 엿볼 수 있으나 부정적 측면의 의식도 내면화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경제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경제가치관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조사 대상 학생들은 합리적인 소비자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중학교교육과정에서 소비자 교육 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경제가치관의 개념	3
2. 선행 연구의 검토	6
III. 연구 방법	9
1. 조사 도구	9
2. 자료의 수집과 처리	10
IV. 연구 분석	12
1.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과 미래관	12
2. 경제생활관	41
3.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51
V. 결론	57
참고 문헌	61
<Abstract>	64
부 록	66

표 차 례

표 1. Newcomb의 가치관 도식	4
표 2. 경제가치관 연구를 위한 조사 영역	8
표 3. 조사도구의 구성	9
표 4.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10
표 5. 배경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11
표 6.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만족도	14
표 7.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16
표 8.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18
표 9. 미래의 경제상황	20
표 10. 미래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전망	22
표 11. 미래에 원하는 직장 취업 가능성에 대한 전망	24
표 12. 미래에 원하는 직업 획득 가능성에 대한 전망	25
표 13. 미래에 원하는 사회적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전망	27
표 14. ‘우리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출세가 가능하다’는 견해 ...	28
표 15. 경제적 성공의 요소에 대한 인식	29
표 16. 경제발전 공헌 집단에 대한 인식	30
표 17. 빈곤계층 존속에 대한 책임의 귀속	32
표 18.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	33
표 19. 노사문제에 대한 전망	34
표 20.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전망	34
표 21. 물가안정에 대한 전망	36
표 22.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망	37
표 23. 실업문제에 대한 전망	38
표 24. 과소비문제에 대한 전망	38
표 25. 환경문제에 대한 전망	39
표 26. 복지사회 건설에 대한 전망	40
표 27.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	40
표 28. 정치적 안정에 대한 전망	41
표 29. 월 저축정도에 대한 실태	41
표 30. 매주 인터넷, 채팅시간에 대한 실태	42

표 31. 오락실 이용 실태	43
표 32. PC방 등 오락실 이용액 실태	43
표 33. 매주 TV, 비디오 시청시간에 대한 실태	44
표 34. 좋은 직업, 좋은 직장에 대한 견해	45
표 35. 직장취업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에 대한 견해	45
표 36. 배우자 선택시 고려 사항에 대한 견해	46
표 37.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에 대한 견해	47
표 38. 대기업의 유명상표에 대한 견해	48
표 39. 수입상품과 국산품간의 질 비교에 관한 견해	49
표 40. 백화점의 상품과 시장 상품과의 질 비교	49
표 41. 상품 가격과 품질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51
표 42. 취업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인식	52
표 43.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이해에 대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인식	53
표 44. 경제 현안이나 문제의 이해에 대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인식	54
표 45. 합리적인 소비생활 영위에 관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인식	55
표 46. 문화생활 영위에 대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인식	56

I. 서 론

세계경제의 신조류 속에서 한국경제는 1997년 말 IMF 관리체제를 맞은 이후 지금까지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 한국경제는 이제 IMF로부터 공여 받은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3년 앞서 전액 상환하여 IMF의 직접적 관리체제는 벗어났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세계 경제에 신조류의 경향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또 다시 경제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조류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자본주의 경제는 저축과 투자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 그런데 21세기를 주도하는 정보매체는 사람들의 뇌리에 소비 중심의 가치관과 물질만능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소비자시대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시대란 소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가 많고 다양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¹⁾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고도의 산업화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산업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개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산층까지 확산됨에 따라 대중소비가 가능해졌고, 경제 제도적으로는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발전되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은 필연적으로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한다. 청소년기가 경제가치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할 때, 어떠한 경제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는 고려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청소년들이 경제 생활 및 경제 현상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청소년 시기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가치관과 태도가 결정화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관한 정의적인 영역의 기초 자료나 연구는 거의 없다. 구체적으로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중 경제가치관을 조사 연구한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를 내면화시키는 일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경제가치관을 파악하여 학교 경제 교육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현재 및 미래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 및 여건에 관한 인식과 전망, 현재 및 미래에 있

1) 남덕우(2002), 「(전문가 10인의)한국경제를 보는 눈」, 삼성경제연구소, p.47.

어서의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과 경제 현안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망, 일반적인 경제생활관, 그리고 경제생활 영위에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교 경제 교육의 개선 방안과 특히 경제가치관 교육의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과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의 표집 선정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제주시 남·여 2개 중학교, 서귀포시 남·여 2개 중학교, 동부 지역에 위치한 1개 중학교, 서부지역에 위치한 1개 중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경제가치관에 관한 측정 변인으로 개인과 가정의 경제상황과 사회의 경제 상황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경제생활관,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등 4개 영역으로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질문지를 가지고 집단별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작성한 것을 기초로 현실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²⁾ 조사 내용을 성별, 현 거주지별, 보호자의 교육정도와 직업, 가족의 수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경제적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가치관 영역을 자신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과 미래관,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과 미래관, 경제생활관,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으로 분류하고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자신이 처한 개인과 가정의 경제상황 및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은 긍정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를 성별, 현 거주지별, 보호자의 교육정도, 가족의 수입 정도,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 미래에 자신과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성별, 현 거주지별, 보호자의 교육정도, 가족의 수입 정도,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살펴보았다. 셋째, 중학생들의 경제생활관은 합리적이고 건전한지가 성별, 현 거주지별, 보호자의 교육정도, 가족의 수입 정도,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넷째, 중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미래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즉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 결과가 중학교 경제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성별, 현 거주지별, 보호자의 교육정도, 가족의 수입 정도,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알아보았다.

2) 임천순 외 2인(1990), 「청소년 경제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II. 이론적 배경

1. 경제가치관의 개념

1) 경제가치관의 개념

가치(values)라는 개념은 매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 가치는 “임의의 대상이 인간에 대해 갖는 유의미성”을 뜻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구별되고 있는 가치 개념들, 즉 경제적, 정신적, 사회정치적, 문화적, 미적, 도덕적 가치 개념들에 대한 구별은 이들 속에 표현되어 있는 매우 다양한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욕구 및 이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³⁾ 여러 학자들의 가치와 가치관의 정의를 보면 가치와 가치관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치관을 가치보다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에 관심을 표명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반응의 경향이나 사물, 행동에 대하여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 또는 그 평가기준을 가치관”이라고 한다.⁴⁾

로키치(M. Rockeach)에 의하면, 가치관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거나 또는 행동하지 말아야 하거나, 획득할 가치가 있는 최고의 존재목적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신념체계의 중앙에 위치한 일종의 신념”이라고 정의한다.⁵⁾

정세구는 가치와 가치관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서 가치를 사람들이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간가치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⁶⁾

박희섭은 “행위의 이용 가능한 제 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스러운 것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개념”을 가치관이라고 했다.⁷⁾

3) 한국철학사상연구회(1994), 「철학대사전」, 동녘, pp.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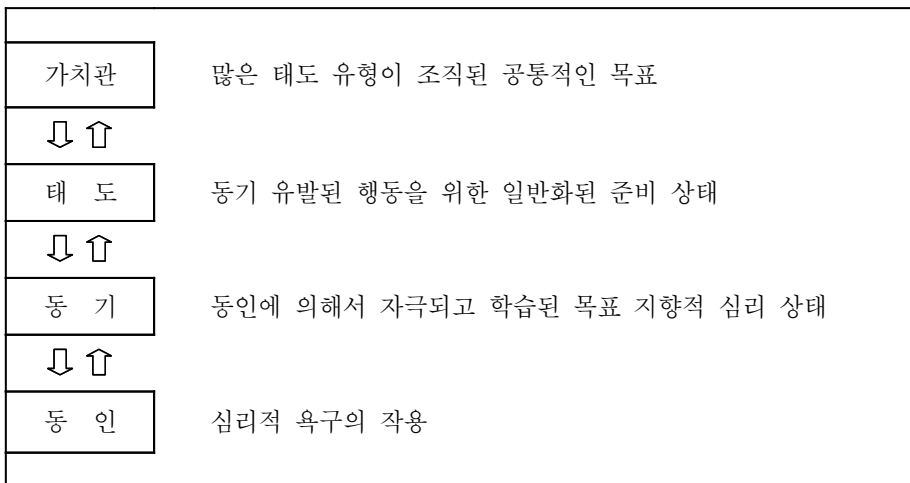
4) 차경수(1996), 「현대의 사회과교육」, 학문사, p.289.

5) M. Rockeach(1969), *Beliefs and Attitudes and Values*, Jossey-Bass, p.124.

6) 정세구(1988), 「가치·태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영문사, p.10.

정원식은 “가치관이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 과정 중에서 선택의 영향을 주는 규범적 표준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인이 생각하는 당위적인 것 혹은 규범적인 측면”⁸⁾이라고 하였으며, 뉴콤(T. M. Newcomb)은 “가치관이란 행동표준 혹은 종합적 태도의 대상이 되는 목표 내지 표준이다”⁹⁾라고 정의하여 인간의 태도를 방향짓고 결정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유사한 개념인 동인, 동기, 태도와의 관계를 <표 1>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표 1> Newcomb의 가치관 도식



이상과 같은 개념 정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개념을 “어떤 사회적 상황(경제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개인의 심리적 체계”라 정의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치관의 유형은 학문적 입장과 학자에 따라 그 분류 기준이 다양하다. 정범모는 사회와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첫째 사회전반이 비교적 일반적인 일련의 지배적 가치관, 둘째 그 사회의 일부에서만 통용되는 변증적인 가치관, 셋째 그 사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단적인 가치관¹⁰⁾으로 분류하였다.

7) 박희섭(1987),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청소년지도육성회, p.14.

8) 정원식(1975),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p.27.

9) T. M. Newcomb(1965), *Social Psychology*, Holt, Rinehart & Winston, p.130.

10) 정범모(1973), 「가치와 가치관」, 배영사, pp.18~28.

클라크 혼(F. Kluckhohn)은 가치관의 유형을 여섯 개로 나누었다. 그는 인간과 인간, 자연, 시간 등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치관의 모형을 제시했다.

첫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 : 종적인 가치관, 횡적인 가치관, 개인주의적 가치관

둘째, 인간과 시간의 관계 : 과거지향주의, 현재중심주의, 미래중심주의

셋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 : 자연순응, 자연조화, 자연극복

넷째, 인간과 노동 및 생산의 관계 : 존재 지향적 문화, 생성 지향적 문화, 활동 지향적 문화

다섯째, 인간과 소유의 관계 : 물질주의와 정신주의

여섯째, 인간과 그 자신의 관계 : 성악설과 성선설 등 이러한 모형은 서양 중심적인 것이어서 이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후진적인 것에 속한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과 환경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가치관의 모형을 매우 잘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¹⁾

반면 에버렛(W. G. Everett)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 신체적 가치, 오락의 가치, 사교의 가치, 품성의 가치, 심미적 가치, 지적 가치, 종교적 가치 등 여덟 가지로 나누어 하나의 가치 체계를 이루었다.¹²⁾

이상과 같이 가치관의 유형들의 의미 탐색을 근간으로 해서 그들이 시사하는 바를 경제가치관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경제가치관은 가치관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 의미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리하여 중학생들이 어떤 경제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경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는 경제행위가 일정한 질서와 조직 아래 연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이며 경제이론이 최대로 유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심리적 이론과 연결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에서 제도적·문화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 경제발전에는 사회구성원들의 경제 행동 양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 행동 양식은 그 사회의 경제문화로 발전하며 문화적 가치지향성이 그 사회의 경제가치관이 된다.

경제가치관이란 경제문제에 있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으로서 경제활동의 목적과 그 행동양식 및 조직양식을 규제하는 종합적인 가치의식을 의미한다. 최윤희는 경제가치관을 “경제문제나 직업세계에 관련하여 갖게되는 이해득실의 관계에

11) F. Kluckhohn(1962), *Sociological theory, Values and sociocultural change* : 차경수(1996), 「현대의 사회과교육」, pp.289~290.에서 재인용.

12) W. G. Everett(1918), *Moral Values* : 강영선 외(1988), 「세계철학대사전」, 교육출판공사, p.5.에서 재인용.

대한 개념”¹³⁾으로, 김창영은 경제가치관을 “개인의 경제상황 및 경제생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개인의 심리적 체계 및 모든 경제문제에 대한 생각과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가치관을 자신이 처한 경제 사회 환경 및 체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개인의 심리적 체계 및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나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경제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논의는 다양하나 대체로 지식의 구조와 탐구의 방법 및 정의적 요소가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⁴⁾ 학교 경제교육의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고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지식과 경제 가치 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다.¹⁵⁾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임천순 외 2인의 연구 영역을 적용하여 개인과 가정 및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과 미래관, 경제생활관, 경제생활 영위에 필요한 중3 교육과정에서 경제관련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성향을 밝히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경제의식에 관한 자료는 많으나 경제가치관에 관한 자료는 충분치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의식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는 경제가치관과 의식을 혼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본 논문은 경제가치관을 정의적인 측면의 영역으로 보고 조사 영역을 4분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로는 임천순 외 2인의 연구, 강태준, 김창영, 전국경제인연합회, 영국의 화이트 헤드(D. J. Whitehead)의 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임천순 외 2인은 “청소년의 경제가치관 조사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아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예측하고, 또 그것이 교육적인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13) 최용희(1990), “고등학생의 경제가치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p.13.

14) 김창영(1994), “고교생의 경제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p.9~10.

15) 이재웅(1987), “한국 경제의 현실과 경제교육의 과제”, 「고등학교 경제 교육 연수 자료」, 한국 교육 개발원, pp.22~23.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인식 하에 당해 년도 고교를 졸업한 취업자, 4년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배경변인으로서의 성별, 출신 고교 유형별, 가장의 수입별, 경제 수준별로 분류하여 개인 및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과 미래관, 경제생활관, 경제 생활에 필요한 고등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여 청소년들에게 이미 결정화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보다 자신과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한 현실 및 미래 세계에 대해 그들이 표출하고 있는 긍정·부정의 정도, 만족·불만족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경제가치관의 일면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¹⁶⁾

강태준은 “초등학교 학생의 경제가치관 조사 연구(인천직할시를 중심으로)”¹⁷⁾에서 국민학교 학생의 경제가치관은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영역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견해가 차츰 증가하여 그간의 경제교육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창영은 “고교생의 경제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이 경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종합적 가치관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배경변인으로서의 성별, 과정별, 보호자의 교육 정도, 가족의 수입 정도로 분류하였다. 경제가치관 영역으로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미래관, 경제생활관, 경제적 사회관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학교 현장의 경제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¹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사회개발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대한 인식, 기대 수준 파악, 주요 경제 현안 문제 및 경제 민주화 등 전환기의 제 문제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1988년도에 65개 지역에서 20세 이상의 성인 3,0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 도구는 경제 및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전망,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인식, 주요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 경제의 국제관,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 노사 문제에 대한 인식, 계층 의식, 경제 의식 및 정치 의식,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기타 경제 생활에 대한 인식 등 9개의 척도 하에 총 5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¹⁹⁾

영국의 화이트 헤드(D. J. Whitehead)는 학교 경제 교육이 경제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이트헤드는 영국 내에서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가치관 조사 도구가 없는

16) 임천순 외 2인(1990), 전계서, pp.16~20.

17) 강태준(1992), “초등학교 학생의 경제가치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80.

18) 김창영(1994), 전계서. pp.2~3.

19) 전국경제인연합회(1988), 「국민 경제의식 동향 조사」

상황에서 미국의 도구를 참고로 하여 조사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는 일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종합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고, 또한 경제가치관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개인 변인에 관한 연구 등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²⁰⁾

본 연구에서는 경제가치관의 연구를 위한 조사 영역을 4분야로 설정하였다.

첫째, 자신과 가정의 경제상황(여건)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으로, 자신과 가정이 처해있는 경제적 환경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사회의 경제상황(여건)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정하였다.

셋째, 경제생활관으로 저축 및 여가 활동 실태, 직업관, 결혼관, 경제적 자립관, 소비자관으로 분류하여 영역을 설정하였다.

넷째,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을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개인의 환경적 배경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 배경 변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경제가치관의 연구를 위한 조사영역은 <표 2>와 같다.

<표 2> 경제가치관 연구를 위한 조사 영역

가치관 영역	하위 영역	배경 변인
개인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과 미래관	개인적 상황 사회적 상황	성별 현 거주지별 보호자 교육 정도 가족의 수입 정도 보호자의 직업 생활비 소득자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개인적 상황 사회적 상황	
경제생활관	저축 및 여가 활동 실태 직업관 결혼관 경제적 자립관 소비자관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20) D. J. Whitehead(1985),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Economic Attitude Scale* : 임천순 외 2인(1990), 전게서, pp.41~43.에서 재인용.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 중학생의 경제가치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경제가치관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조사 연구로는 질문지법을 채택하였다.

1. 조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로는 임천순 외 2인의 “청소년의 경제가치관 조사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영역 및 하위영역과 질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도구의 구성

가치관 영역	질문 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개인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현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만족도	1	8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만족도	2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3	
	가정의 미래	4	
	미래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전망	5	
	직장 취업 가능성	6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	7	
	사회적 지위 획득의 가능성	8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노력과 출세와의 관계	9	6
	경제적 성공의 요소	10	
	경제발전의 공헌 주체	11	
	빈곤층 존속의 책임에 대한 견해	12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	13	
	미래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전망	14	
경제생활관	한달 저축 액수	15	7
	여가 활동 실태	16	
	직업 선택의 기준	17	
	직장 취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	18	
	결혼관	19	
	경제적 자립관	20	
	소비자관	21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미래에 있어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22	1

2. 자료의 수집과 처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 제주도의 서부지역, 동부 지역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하였다. 제주시 지역에 위치한 남·여 중학교 1개교씩 2개교, 서귀포시 지역에 위치한 남·여 중학교 1개교씩 2개교, 동부 지역에 위치한 1개교, 서부 지역에 위치한 1개교 등 총 6개교를 무작위 추출, 표집 학교로 선정하였다.

질문지는 2003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 해당 학교 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 회수하였다.

회수율을 보면 선정된 학교의 3학년을 대상으로 1학급에 35부씩 총 1,120부를 배부하여 실시한 후 1,044부를 회수하여 93%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중 중복 표시하거나 통계처리에 부적당한 응답지 101부를 제외하고 943부를 유효 처리하였다. 질문지 배부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 역 별				성 별		전 체
	제주시	서귀포시	동부	서부	남	여	
배부	560	350	140	70	575	545	1,120
회수	533	320	122	69	542	502	1,044
%	95.18	91.43	87.14	98.57	94.26	92.11	93.21

질문지 조사는 2003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각 중학교 교사들의 도움을 얻어 실시하였으며, 학급 단위로 집단별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실시 후 회수된 질문지는 SAS V8.1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 및 통계 분석하였으며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성별, 현거주지별, 보호자의 교육정도, 가족의 수입정도, 보호자의 직업, 맞벌이 유무에 따른 배경변인별 집단간의 반응의 차이가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번째 개인과 가정의 경제상황(여건)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두번째 사회의 경제상황(여건)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은 응답 비율에 대하여 χ^2 검정을 통하여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으며, 세번째 경제생활관 중 저축 및 여가 활동 실태, 직업관, 결혼관에 대해서는 평균 및 빈도분석을 제시하였고, 경제적 자립관과 소비자관에 대한 의식구조를 χ^2 검정을 통하여 검정하였으며, 네번째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의식 구조에 차이를 χ^2 검정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그리고 배경변인별 집단간에 차이

가 거의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반응 결과만 제시하였다.

<표 5> 배경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변 인	도 수	백분율(%)
성 별	남학생	516	54.72
	여학생	427	45.28
학 년	3학년	943	100.00
현 거주지	제주시	497	52.70
	서귀포시	277	29.37
	남제주군	104	11.03
	북제주군	65	6.89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86	9.12
	고졸	490	51.96
	전문대 졸업 이상	367	38.92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8	14.63
	100만원 ~ 200만원	366	38.81
	200만원 ~ 300만원	276	29.27
	300만원 이상	163	17.29
보호자의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1	18.13
	회사원	176	18.66
	상업(서비스업 포함)	368	39.02
	농·수산업(노동 포함)	198	21.00
	무직	30	3.18
생활비 소득자	아버지 혼자	274	29.06
	맞벌이	574	60.87
	어머니 혼자	54	5.73
	기타	41	4.35
	합계	943	100.00

IV. 연구 분석

22문항에 대한 표집대상들의 반응결과를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영역과 내용별 문항 순서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반응경향 및 반응분포를 제시하고, 둘째 표집대상들의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 경향을 해석하고 논의하려고 한다.

1.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과 미래관

1) 개인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1) 전반적인 상황

“학생의 가정이 현재 처해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약간 만족스럽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스럽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결과는 ‘그저 그렇다’는 문항이 35.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와 ‘약간 만족스럽다’ 문항이 52.7%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가정이 현재 처해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집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현 거주지, 아버지 학력, 월 평균 소득, 보호자의 직업, 생활비 소득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매우 만족스럽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 또는 고졸의 경우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는 ‘매우 만족스럽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 100만원~200

만원, 200만원~300만원에서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은 반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 ‘매우 만족스럽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월 평균 소득이 2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이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의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의 경우는 ‘매우 만족스럽다’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보호자의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는 ‘약간 만족스럽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자의 직업이 상업(서비스업 포함), 농·수산업, 무직의 경우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만족도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2 100.00				262 27.81	234 24.84	332 35.24	90 9.55	24 2.55
현거주지	제주시	496 52.65	50.1237	12	*** 0.0001	164 17.41	134 14.23	145 15.39	41 4.35	12 1.27
	서귀포시	277 29.41				75 7.96	55 5.84	102 10.83	37 3.93	8 0.85
	남제주군	104 11.04				15 1.59	21 2.23	57 6.05	8 0.85	3 0.32
	북제주군	65 6.90				8 0.85	24 2.55	28 2.97	4 0.42	1 0.11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86 9.13	41.6709	8	*** 0.0001	14 1.49	16 1.70	38 4.03	12 1.27	6 0.64
	고졸	489 51.91				114 12.10	122 12.95	191 20.28	53 5.63	9 0.96
	전문대 졸업이상	367 38.96				134 14.23	96 10.19	103 10.93	25 2.65	9 0.96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8 14.65	81.3977	12	*** 0.0001	18 1.91	31 3.29	53 5.63	27 2.87	9 0.96
	100만원 ~ 200만원	366 38.85				84 8.92	87 9.24	144 15.29	46 4.88	5 0.53
	200만원 ~ 300만원	275 29.19				92 9.77	75 7.96	93 9.87	11 1.17	4 0.42
	300만원 이상	163 17.30				68 7.22	41 4.35	42 4.46	6 0.64	6 0.64
보호자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1 18.15	95.5837	16	*** 0.0001	78 8.28	36 3.82	47 4.99	9 0.96	1 0.11
	회사원	176 18.68				48 5.10	58 6.16	51 5.41	15 1.59	4 0.42
	상업(서비스업 포함)	367 38.96				106 11.25	92 9.77	122 12.95	37 3.93	10 1.06
	농·수산업(노동 포함)	198 21.02				27 2.87	44 4.67	97 10.30	26 2.76	4 0.42
	무직	30 3.18				3 0.32	4 0.42	15 1.59	3 0.32	5 0.53
생활비 소득자	아버지 혼자	274 29.09	51.4728	12	*** 0.0001	85 9.02	68 7.22	92 9.77	22 2.34	7 0.74
	맞벌이	573 60.83				168 17.83	143 15.18	203 21.55	50 5.31	9 0.96
	어머니 혼자	54 5.73				5 0.53	15 1.59	17 1.80	14 1.49	3 0.32
	기타	41 4.35				4 0.42	8 0.85	20 2.12	4 0.42	5 0.53

***: p<.001

(2) 경제상황

“학생의 가정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약간 만족스럽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스럽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결과는 ‘그저 그렇다’는 문항이 38.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22.5% ‘약간 만족스럽다’는 24.3%의 응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46.8%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현재의 생활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해 약간 불만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 또는 고졸의 경우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은 반면, 대졸 보호자의 자녀인 경우는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 100만원~200만원, 200만원~300만원에서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은 반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 ‘매우 만족스럽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이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 비해 떨어지게 나타났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의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의 경우는 ‘매우 만족스럽다’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보호자의 직업이 회사원, 상업(서비스업 포함), 농·수산업, 무직의 경우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 소득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생활비 소득을 아버지 혼자 또는 부모 모두 맞벌이하는 경우는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 또는 기타의 경우 ‘그저 그렇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3 100.00				212 22.48	229 24.28	360 38.18	120 12.73	22 2.33
성별	남학생	516 54.72	13.1538	4	* 0.0105	131 13.89	130 13.79	190 20.15	51 5.41	14 1.48
	여학생	427 45.28				81 8.59	99 10.50	170 18.03	69 7.32	8 0.85
현거주지	제주시	497 52.70	55.1134	12	*** 0.0001	145 15.38	134 14.21	159 16.86	50 5.30	9 0.95
	서귀포시	277 29.37				49 5.20	57 6.04	117 12.41	45 4.77	9 0.95
	남제주군	104 11.03				10 1.06	17 1.80	55 5.83	18 1.91	4 0.42
	북제주군	65 6.89				8 0.85	21 2.23	29 3.08	7 0.74	0 0.00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86 9.12	50.2414	8	*** 0.0001	8 0.85	12 1.27	42 4.45	20 2.12	4 0.42
	고졸	490 51.96				97 10.29	108 11.45	210 22.27	62 6.57	13 1.38
	전문대 졸업이상	367 38.92				107 11.35	109 11.56	108 11.45	38 4.03	5 0.53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8 14.63	136.0679	12	*** 0.0001	8 0.85	27 2.86	53 5.62	39 4.14	11 1.17
	100만원~200만원	366 38.81				61 6.47	73 7.74	173 18.35	53 5.62	6 0.64
	200만원~300만원	276 29.27				79 8.38	83 8.80	91 9.65	20 2.12	3 0.32
	300만원 이상	163 17.29				64 6.79	46 4.88	43 4.56	8 0.85	2 0.21
보호자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1 18.13	90.9584	16	*** 0.0001	63 6.68	51 5.41	42 4.45	13 1.38	2 0.21
	회사원	176 18.66				42 4.45	49 5.20	69 7.32	16 1.70	0 0.00
	상업(서비스업 포함)	368 39.02				89 9.44	88 9.33	135 14.32	46 4.88	10 1.06
	농·수산업(노동 포함)	198 21.00				16 1.70	38 4.03	98 10.39	39 4.14	7 0.74
	무직	30 3.18				2 0.21	3 0.32	16 1.70	6 0.64	3 0.32
생활비 소득자	아버지 혼자	274 29.06	53.1007	12	*** 0.0001	75 7.95	64 6.79	98 10.39	31 3.29	6 0.64
	맞벌이	574 60.87				133 14.10	145 15.38	224 23.75	64 6.79	8 0.85
	어머니 혼자	54 5.73				2 0.21	10 1.06	22 2.33	16 1.70	4 0.42
	기타	41 4.35				2 0.21	10 1.06	16 1.70	9 0.95	4 0.42

*: p<.05, **: p<.01

(3) 생활 수준

“학생의 가정이 현재 처해 있는 생활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약간 만족스럽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스럽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결과는 ‘그저 그렇다’는 문항이 37.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26.3% ‘약간 만족스럽다’는 26.2%의 응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자기 생활 수준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만족스러워 하는 집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현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 또는 고졸의 경우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은 반면,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는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 100만원~200만원, 200만원~300만원에서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은 반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 ‘매우 만족스럽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이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의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의 경우는 ‘매우 만족스럽다’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보호자의 직업이 회사원, 상업(서비스업 포함), 농·수산업, 무직의 경우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 소득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생활비 소득을 아버지 혼자 또는 맞벌이하는 경우는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 또는 기타의 경우 ‘그저 그렇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2 100.00				248 26.33	247 26.22	355 37.69	73 7.75	19 2.02
현거주지	제주시	496 52.65	43.2977	12	*** 0.0001	162 17.20	139 14.76	159 16.87	29 3.08	7 0.74
	서귀포시	277 29.41				60 6.37	67 7.11	112 11.89	29 3.08	9 0.96
	남제주군	104 11.04				14 1.49	23 2.44	52 5.52	12 1.27	3 0.32
	북제주군	65 6.90				12 1.27	18 1.91	32 3.40	3 0.32	0 0.00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86 9.13	43.5735	8	*** 0.0001	13 1.38	18 1.91	38 4.03	13 1.38	4 0.42
	고졸	489 51.91				109 11.57	122 12.95	202 21.44	44 4.67	12 1.27
	전문대 이상	367 38.96				126 13.38	107 11.36	115 12.21	16 1.70	3 0.32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8 14.65	94.6294	12	*** 0.0001	19 2.02	23 2.44	62 6.58	27 2.87	7 0.74
	100만원 ~ 200만원	366 38.85				75 7.96	95 10.08	160 16.99	29 3.08	7 0.74
	200만원 ~ 300만원	275 29.19				84 8.92	83 8.81	94 9.98	11 1.17	3 0.32
	300만원 이상	163 17.30				70 7.43	46 4.88	39 4.14	6 0.64	2 0.21
보호자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1 18.15	66.0592	16	*** 0.0001	69 7.32	43 4.56	49 5.20	9 0.96	1 0.11
	회사원	176 18.68				49 5.20	54 5.73	63 6.69	9 0.96	1 0.11
	상업(서비스업 포함)	367 38.96				98 10.40	101 10.72	127 13.48	31 3.29	10 1.06
	농·수산업(노동 포함)	198 21.02				30 3.18	43 4.56	99 10.51	22 2.34	4 0.42
	무직	30 3.18				2 0.21	6 0.64	17 1.80	2 0.21	3 0.32
생활비 소득자	아버지 혼자	274 29.09	45.4249	12	*** 0.0001	82 8.70	71 7.54	101 10.72	15 1.59	5 0.53
	맞벌이	573 60.83				157 16.67	154 16.35	215 22.82	39 4.14	8 0.85
	어머니 혼자	54 5.73				5 0.53	14 1.49	20 2.12	12 1.27	3 0.32
	기타	41 4.35				4 0.42	8 0.85	19 2.02	7 0.74	3 0.32

***: p<.001

(4) 가정의 미래

“경제적인 면에서 학생의 가정의 미래는 지금의 상태보다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크게 나아질 것이다 ② 비교적 나아질 것이다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④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⑤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결과는 ‘비교적 나아질 것이다’는 문항이 52.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크게 나아질 것이다’는 24.3%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절대 다수가 자신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현 거주지에 따른 차이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에서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생활비 소득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생활비 소득을 아버지 혼자 또는 맞벌이, 어머니 혼자 소득 하는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는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현실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 낙관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 미래의 경제상황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3 100.00				229 24.28	494 52.39	182 19.30	32 3.39	6 0.64
현거주지	제주시	497 52.70	29.8971	12	** 0.0029	136 14.42	256 27.15	93 9.86	10 1.06	2 0.21
	서귀포시	277 29.37				53 5.62	156 16.54	51 5.41	16 1.70	1 0.11
	남제주군	104 11.03				24 2.55	43 4.56	29 3.08	6 0.64	2 0.21
	북제주군	65 6.89				16 1.70	39 4.14	9 0.95	0 0.00	1 0.1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8 14.63	48.0395	12	*** 0.0001	25 2.65	66 7.00	32 3.39	11 1.17	4 0.42
	100만원 ~ 200만원	366 38.81				76 8.06	210 22.27	67 7.10	12 1.27	1 0.11
	200만원 ~ 300만원	276 29.27				68 7.21	140 14.85	62 6.57	5 0.53	1 0.11
	300만원 이상	163 17.29				60 6.36	78 8.27	21 2.23	4 0.42	0 0.00
생활비 소득자	아버지 혼자	274 29.06	26.1473	12	* 0.0102	64 6.79	145 15.38	55 5.83	9 0.95	1 0.11
	맞벌이	574 60.87				149 15.80	300 31.81	106 11.24	17 1.80	2 0.21
	어머니 혼자	54 5.73				11 1.17	31 3.29	9 0.95	2 0.21	1 0.11
	기타	41 4.35				5 0.53	18 1.91	12 1.27	4 0.42	2 0.21

*: p<.05, **: p<.01, ***: p<.001

(5) 경제적 안정

“학생의 가정의 미래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불안하다 ② 조금 불안하다 ③ 거의 불안하지 않다 ④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⑤ 중요하지 않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결과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36.4%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반면 56.4%는 거의 불안하지 않거나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현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거의 불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아버지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는 ‘거의 불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반면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거의 불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 회사원, 상업(서비스 포함)의 경우는 ‘거의 불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아버지 직업이 농·수산업(노동 포함), 무직의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 소득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생활비 소득을 아버지 혼자 또는 맞벌이하는 경우는 ‘거의 불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어머니 혼자 또는 기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10> 미래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1 100.00				11 1.17	331 35.18	336 35.71	195 20.72	68 7.23
현거주지	제주시	496 52.71	21.8226	12	* 0.0396	5 0.53	149 15.83	182 19.34	120 12.75	40 4.25
	서귀포시	276 29.33				3 0.32	112 11.90	100 10.63	49 5.21	12 1.28
	남제주군	104 11.05				2 0.21	40 4.25	34 3.61	18 1.91	10 1.06
	북제주군	65 6.91				1 0.11	30 3.19	20 2.13	8 0.85	6 0.64
아버지학력	중졸이하	86 9.14	48.2747	8	*** 0.0001	2 0.21	51 5.42	20 2.13	8 0.85	5 0.53
	고졸	489 51.97				4 0.43	189 20.09	166 17.64	91 9.67	39 4.14
	전문대 졸업이상	366 38.89				5 0.53	91 9.67	150 15.94	96 10.20	24 2.55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8 14.67	76.9798	12	*** 0.0001	4 0.43	77 8.18	32 3.40	16 1.70	9 0.96
	100만원~200 만원	365 38.79				4 0.43	144 15.30	129 13.71	56 5.95	32 3.40
	200만원~300 만원	275 29.22				3 0.32	79 8.40	111 11.80	68 7.23	14 1.49
	300만원 이상	163 17.32				0 0.00	31 3.29	64 6.80	55 5.84	13 1.38
보호자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1 18.17	57.5722	16	*** 0.0001	3 0.32	41 4.36	59 6.27	58 6.16	10 1.06
	회사원	175 18.60				1 0.115	51 5.42	78 8.29	35 3.72	10 1.06
	상업(서비스 업 포함)	368 39.11				5 0.53	126 13.39	132 14.03	77 8.18	28 2.98
	농·수산업(노동포함)	197 20.94				2 0.21	98 10.41	58 6.16	23 2.44	16 1.70
	무직	30 3.19				0 0.00	15 1.59	9 0.96	2 0.21	4 0.43
생활비 소득자	아버지 혼자	274 29.12	25.8024	12	* 0.0114	2 0.21	92 9.78	99 10.52	57 6.06	24 2.55
	맞벌이	572 60.79				8 0.85	187 19.87	215 22.85	127 13.50	35 3.72
	어머니 혼자	54 5.74				0 0.00	30 3.19	14 1.49	5 0.53	5 0.53
	기타	41 4.36				1 0.11	22 2.34	8 0.85	6 0.64	4 0.43

*: p<.05, **: p<.01

(6) 원하는 직장 취업 가능성

“학생의 미래에 있어서 원하는 직장 취업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불안하다 ② 조금 불안하다 ③ 거의 불안하지 않다 ④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⑤ 중요하지 않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결과는 ‘조금 불안하다’는 문항이 54.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거의 불안하지 않다’는 20.9%의 응답을 보였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아버지 학력, 보호자 직업을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아버지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 상업(서비스 포함), 농·수산업(노동 포함)의 경우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보호자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래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54.9%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학력 실업난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을 중학생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99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중 본 질문문항과 관련이 있는 문항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이 취업자에 비해 특히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¹⁾

21) 임천순 외 2인(1990), 전계서, pp.58~59.

<표 11> 미래에 원하는 직장 취업 가능성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1 100.00				87 9.25	517 54.94	197 20.94	104 11.05	36 3.83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86 9.14	28.7289	8	*** 0.0004	12 1.28	47 4.99	13 1.38	5 0.53	9 0.96
	고졸	489 51.97				50 5.31	281 29.86	100 10.63	44 4.68	14 1.49
	전문대 졸업이상	366 38.89				25 2.66	189 20.09	84 8.93	55 5.84	13 1.38
보호자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1 18.17	33.8647	16	** 0.0057	15 1.59	91 9.67	32 3.40	27 2.87	6 0.64
	회사원	176 18.70				8 0.85	94 9.99	48 5.10	24 2.55	2 0.21
	상업(서비스업 포함)	367 39.00				43 4.57	195 20.72	70 7.44	43 4.57	16 1.70
	농·수산업(노동 포함)	197 20.94				18 1.91	121 12.86	38 4.04	10 1.06	10 1.06
	무직	30 3.19				3 0.32	16 1.70	9 0.96	0 0.00	2 0.21

** : p<.01, *** : p<.001

(7)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

“학생은 미래에 언젠가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자신이 있다 ② 매우 자신이 없다 ③ 어느 정도 자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⑤ 다소 자신이 없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결과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문항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23.5%의 응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65.7%의 학생이 자신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현 거주지, 월 평균 소득, 생활비 소득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먼저 현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긍정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어느 정도 자신 있다’는 응답 외에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응답 외에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 소득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혼자 또는 맞벌이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어머니 혼자 또는 기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응답 외에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취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하는 직업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미래에 원하는 직업 획득 가능성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2 100.00				188 19.96	19 2.02	431 45.75	221 23.46	83 8.81
현거주지	제주시	497 52.76	23.0579	12	* 0.0272	116 12.31	7 0.74	216 22.93	114 12.10	44 4.67
	서귀포시	276 29.30				51 5.41	7 0.74	136 14.44	64 6.79	18 1.91
	남제주군	104 11.04				12 1.27	2 0.21	52 5.52	29 3.08	9 0.96
	북제주군	65 6.90				9 0.96	3 0.32	27 2.87	14 1.49	12 1.27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8 14.65	21.6806	12	* 0.0413	24 2.55	2 0.21	59 6.26	44 4.67	9 0.96
	100만원~200만원	366 38.85				61 6.48	10 1.06	166 17.62	89 9.45	40 4.25
	200만원~300만원	275 29.19				56 5.94	4 0.42	134 14.23	59 6.26	22 2.34
	300만원 이상	163 17.30				47 4.99	3 0.32	72 7.64	29 3.08	12 1.27
생활비 소득자	아버지 혼자	274 29.09	27.6761	12	* 0.0062	67 7.11	5 0.53	131 13.91	53 5.63	18 1.91
	맞벌이	573 60.83				104 11.04	13 1.38	262 27.81	139 14.76	55 5.84
	어머니 혼자	54 5.73				14 1.49	1 0.11	23 2.44	15 1.59	1 0.11
	기타	41 4.35				3 0.32	0 0.00	15 1.59	14 1.49	9 0.96

*: p<.05

(8) 사회적 지위 획득

“학생의 미래에 있어서 원하는 사회적 지위 획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불안하다 ② 조금 불안하다 ③ 거의 불안하지 않다 ④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⑤ 중요하지 않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결과는 ‘조금 불안하다’는 문항이 43.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거의 불안하지 않다’는 25.1%의 응답을 보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47.3%의 학생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보호자 학력, 월 평균 소득, 생활비 소득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의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의 응답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음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의 응답 비율 외에 ‘거의 불안하지 않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의 응답 비율 외에 긍정적으로 ‘불안하지 않다’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 회사원의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는 응답 비율 외에 긍정적으로 ‘불안하지 않다’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보호자 직업이 상업(서비스업 포함), 농·수산업(노동 포함), 무직의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 중 거의 반 정도가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가정·사회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

<표 13> 미래에 원하는 사회적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1 100.00				35 3.72	410 43.57	236 25.08	145 15.41	115 12.22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86 9.14	16.1373	8	* 0.0405	1 0.11	39 4.14	23 2.44	10 1.06	13 1.38
	고졸	488 51.86				21 2.23	228 24.23	118 12.54	60 6.38	61 6.48
	전문대 졸업이상	367 39.00				13 1.38	143 15.20	95 10.10	75 7.97	41 4.36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8 14.67	22.0026	12	* 0.0375	6 0.64	70 7.44	33 3.51	8 0.85	21 2.23
	100만원 ~ 200만 원	364 38.68				14 1.49	157 16.68	90 9.56	57 6.06	46 4.89
	200만원 ~ 300만 원	276 29.33				11 1.17	121 12.86	74 7.86	41 4.36	29 3.08
	300만원 이상	163 17.32				4 0.43	62 6.59	39 4.14	39 4.14	19 2.02
보통자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1 18.17	31.8163	16	* 0.0106	7 0.74	71 7.55	38 4.04	36 3.83	19 2.02
	회사원	176 18.70				3 0.32	69 7.33	51 5.42	36 3.83	17 1.81
	상업(서비스업 포함)	367 39.00				18 1.91	154 16.37	92 9.78	54 5.74	49 5.21
	농·수산업(노동 포함)	198 21.04				6 0.64	102 10.84	50 5.31	18 1.91	22 2.34
	무직	29 3.08				1 0.11	14 1.49	5 0.53	1 0.11	8 0.85

*: p<.05

2)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1) 노력과 출세

“우리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출세가 가능하다”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적극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다소 동의한다 ④ 전혀 동의 안한다 ⑤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결과는 ‘약간 동의한다’는 문항이 42.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적극 동의한다’는 26.5%의 응답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 중 68.9%가 찬성의 견해를 보이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 출세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여 나머지 변인들에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4> ‘우리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출세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한 결과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2 100.00				250 26.54	399 42.36	150 15.92	68 7.22	75 7.96
성별	남학생	515 54.67	15.6305	4	** 0.0036	157 16.67	215 22.82	69 7.32	41 4.35	33 3.50
	여학생	427 45.33				93 9.87	184 19.53	81 8.60	27 2.87	42 4.46

** : $p < .01$

(2) 경제적 성공의 중요 요소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② 학연과 지연 ③ 본인의 노력 ④ 부모·친척의 정치적 배경 ⑤ 기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결과는 ‘본인의 노력’ 문항이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인들에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보호자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인 경우는 본인의 노력에 응답한 비율 외에 학연과 지연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보호자의 직업이 회사원, 상업(서비스업 포함), 농·수산업(노동 포함)의 경우는 본인의 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 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나 노력 이외의 요소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다소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확신감을 잃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15> 경제적 성공의 요소에 대한 인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9 100.00				106 11.29	80 8.52	686 73.06	41 4.37	26 2.77
보호 자 직 업	공무원(교사 포함)	171 18.21	30.1930	16	* 0.0170	19 2.02	20 2.13	118 12.57	5 0.53	9 0.96
	회사원	176 18.74				14 1.49	12 1.28	145 15.44	5 0.53	0 0.00
	상업(서비스업 포함)	364 38.76				44 4.69	32 3.41	263 28.01	15 1.60	10 1.06
	농·수산업(노동 포함)	198 21.09				27 2.88	13 1.38	140 14.91	14 1.49	4 0.43
	무직	30 3.19				2 0.21	3 0.32	20 2.13	2 0.21	3 0.32

*: p<.05

(3) 경제발전에 공헌한 주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주체는 누구(혹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기업 ② 근로자 ③ 정부 ④ 외국원조 네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결과는 ‘근로자’ 문항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 문항이 25.3%로 그 뒤를 이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아버지 학력, 월 평균 소득,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여 나머지 변인들에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먼저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는 ‘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율 외에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는 ‘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율 외에 ‘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율 외에 ‘기업’과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율 외에 ‘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근로자’가 가장 큰 기여를 하였고(78.3%), ‘기업’,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²²⁾

보호자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의 직업이 없는 경우는 ‘기업’과 ‘근

로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보호자의 직업이 무직을 제외한 경우는 '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공헌을 높게 평가하는 조사 대상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의 풍조가 만연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이들이 아직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나 혹은 더 구체적으로 경제 성장의 공헌 집단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압도적으로 혹은 거의 확일적으로 근로자를 들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표 16> 경제 발전 공헌 집단에 대한 인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932 100.00				236 25.32	551 59.12	117 12.55	28 3.00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83 8.91	18.5179	6	** 0.0051	15 1.61	46 4.94	19 2.04	3 0.32
	고졸	484 51.93				112 12.02	291 31.22	67 7.19	14 1.50
	전문대 이상	365 39.16				109 11.70	214 22.96	31 3.33	11 1.18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7 14.70	20.0918	9	* 0.0174	37 3.97	68 7.30	29 3.11	3 0.32
	100만원~200만원	362 38.84				80 8.58	221 23.71	51 5.47	10 1.07
	200만원~300만원	271 29.08				74 7.94	163 17.49	24 2.58	10 1.07
	300만원 이상	162 17.38				45 4.83	99 10.62	13 1.39	5 0.54
보호자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0 18.24	30.2491	12	** 0.0026	31 3.33	117 12.55	18 1.93	4 0.43
	회사원	173 18.56				54 5.79	103 11.05	15 1.61	1 0.11
	상업(서비스업 포함)	366 39.27				98 10.52	212 22.75	42 4.51	14 1.50
	농·수산업(노동포함)	193 20.71				42 4.51	108 11.59	36 3.86	7 0.75
	무직	30 3.22				11 1.18	11 1.18	6 0.64	2 0.21

*: p<.05, **: p<.01

22) 임천순 외 2인(1990), 전계서, pp.66~67.

(4) 빈곤 계층 존속에 대한 책임의 귀속

“우리나라가 과거 40년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으면서도 아직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본인 ② 가족 ③ 조상(친척) ④ 직장 ⑤ 지역사회 ⑥ 정부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결과는 ‘정부’ 문항이 55.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지역사회’ 문항이 18.9%로 그 뒤를 이었다.

반응 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현 거주지, 보호자 직업, 생활비 소득자 등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현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거주지가 제주시, 서귀포시의 경우는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거주지가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경우는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지역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의 경우는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다른 보호자의 직업의 경우는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지역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 소득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어머니 혼자 생활비를 버는 경우는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아버지 혼자, 맞벌이, 기타의 경우는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어머니 혼자 생활비를 버는 경우에 비해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앞서 ‘경제 성장 공헌 집단’에서의 반응과 비슷하게 청소년들은 빈곤 계층 존속의 원인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7> 빈곤 계층 존속에 대한 책임의 귀속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937 100.00				140 14.94	15 1.60	8 0.85	60 6.40	177 18.89	516 55.07
현거주지	제주시	494 52.72	33.8142	15	** 0.0036	82 8.75	18 1.92	2 0.21	26 2.77	87 9.28	279 29.78
	서귀포시	274 29.24				34 3.63	8 0.85	1 0.11	24 2.56	49 5.23	158 16.86
	남제주군	104 11.10				13 1.39	3 0.32	3 0.32	7 0.75	29 3.09	49 5.23
	북제주군	65 6.94				11 1.17	7 0.75	2 0.21	3 0.32	12 1.28	30 3.20
보호자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0 18.14	40.1483	20	** 0.0048	30 3.20	5 0.53	1 0.11	7 0.75	23 2.45	104 11.10
	회사원	176 18.78				27 2.88	6 0.64	0 0.00	10 1.07	39 4.16	94 10.03
	상업(서비스 업 포함)	365 38.95				53 5.66	10 1.07	4 0.43	26 2.77	65 6.94	207 22.09
	농·수산업(노동 포함)	196 20.92				28 2.99	9 0.96	3 0.32	15 1.60	41 4.38	100 10.67
	무직	30 3.20				2 0.21	6 0.64	0 0.00	2 0.21	9 0.96	11 1.17
생활비 소득자	아버지 혼자	270 28.82	33.5273	15	** 0.0040	40 4.27	10 1.07	2 0.21	19 2.03	47 5.02	152 16.22
	맞벌이	573 61.15				89 9.50	19 2.03	6 0.64	34 3.63	113 12.06	312 33.30
	어머니 혼자	54 5.76				6 0.64	0 0.00	0 0.00	4 0.43	6 0.64	38 4.06
	기타	40 4.27				5 0.53	7 0.75	0 0.00	3 0.32	11 1.17	14 1.49

** : p<.01

(5) 우리나라 경제 발전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임 ② 다소 낙관적임 ③ 낙관도 비관도 아님 ④ 다소 비관적임 ⑤ 매우 비관적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결과는 ‘낙관도 비관도 아님’ 문항이 35.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소 낙관적임’ 문항이 29.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볼 때 조사 대상 학생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발전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모든 변인들에 대해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8>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8 100.00				71 7.57	280 29.85	337 35.93	188 20.04	62 6.61

(6)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문제의 미래상

“경제 및 사회문제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문항을 전체 10문항으로 분류하여 응답한 비율은 다음의 결과와 같다.

(가) 노사문제

노사문제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③ 비판도 낙관도 아니다 ④ 다소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결과는 ‘낙관도 비판도 아니다’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소 비관적이다’라는 응답이 28.8%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1%만이 노사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고,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41%)이 압도적으로 많아 앞으로의 노사문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 아버지 학력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다소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의 경우에 비해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는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중졸 이하의 경우는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졸 이상의 경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아버지 학력이 고졸이상의 경우는 중졸 이하 보다 ‘다소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음)

<표 19> 노사 문제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27 100.00				35 3.78	160 17.26	351 37.86	267 28.80	114 12.30
성별	남학생	506 54.58	17.7526	4	** 0.0014	25 2.70	104 11.22	179 19.31	130 14.02	68 7.34
	여학생	421 45.42				10 1.08	56 6.04	172 18.55	137 14.78	46 4.9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83 8.95	18.3179	8	* 0.0190	0 0.00	19 2.05	28 3.02	20 2.16	16 1.73
	고졸	481 51.89				15 1.62	79 8.52	197 21.25	143 15.43	47 5.07
	전문대 이상	363 39.16				20 2.16	62 6.69	126 13.59	104 11.22	51 5.50

*: p<.05, **: p<.01

(나) 빈부 격차

빈부 격차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③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④ 다소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결과는 ‘다소 비관적이다’ 문항이 35.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문항이 24.8%, ‘매우 비관적이다’ 문항이 22.6%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가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20>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5 100.00				36 3.85	129 13.80	232 24.81	327 34.97	211 22.57
성별	남학생	513 54.87	13.5244	4	** 0.0090	29 3.10	76 8.13	131 14.01	165 17.65	112 11.98
	여학생	422 45.13				7 0.75	53 5.67	101 10.80	162 17.33	99 10.59

** : p<.01

(다) 물가 안정

물가 안정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③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④ 다소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결과는 ‘다소 비관적이다’ 문항이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라는 문항이 33.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비관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 현 거주지, 월 평균 소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 ‘다소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주시,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다소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소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 물가 안정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6 100.00				45 4.81	145 15.49	312 33.33	317 33.87	117 12.50
성별	남학생	514 54.91	16.2978	4	** 0.0026	34 3.63	92 9.83	169 18.06	156 16.67	63 6.73
	여학생	422 45.09				11 1.18	53 5.66	143 15.28	161 17.20	54 5.77
현거주지	제주시	491 52.46	23.9093	12	* 0.0209	23 2.46	82 8.76	184 19.66	148 15.81	54 5.77
	서귀포시	276 29.49				14 1.50	40 4.27	76 8.12	103 11.00	43 4.59
	남제주군	104 11.11				6 0.64	8 0.85	31 3.31	47 5.02	12 1.28
	북제주군	65 6.94				2 0.21	15 1.60	21 2.24	19 2.03	8 0.85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6 14.53	24.0424	12	* 0.0201	12 1.28	20 2.14	41 4.38	48 5.13	15 1.60
	100만원 ~ 200만원	365 39.00				10 1.07	61 6.52	134 14.32	128 13.68	32 3.42
	200만원 ~ 300만원	274 29.27				14 1.50	40 4.27	95 10.15	85 9.08	40 4.27
	300만원 이상	161 17.20				9 0.96	24 2.56	42 4.49	56 5.98	30 3.21

*: p<.05, **: p<.01

(라) 부동산 투기행위 자제에 대한 전망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③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④ 다소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결과는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문항이 38.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소 비관적이다’ 문항이 30.8%로 그 뒤를 이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 아버지 학력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고졸의 경우는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보다 ‘다소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대, 근로 의욕 상실 등 경제발

전에 장애 요인이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29 100.00				34 3.66	70 7.53	358 38.54	286 30.79	181 19.48
성별	남학생	513 55.22	15.5453	4	** 0.0037	26 2.80	44 4.74	177 19.05	155 16.68	111 11.95
	여학생	416 44.78				8 0.86	26 2.80	181 19.48	131 14.10	70 7.53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83 8.93	18.7046	8	* 0.0165	2 0.22	12 1.29	29 3.12	26 2.80	14 1.51
	고졸	482 51.88				17 1.83	34 3.66	210 22.60	138 14.85	83 8.93
	전문대 이상	364 39.18				15 1.61	24 2.58	119 12.81	122 13.13	84 9.04

*: p<.05, **: p<.01

(마) 실업 문제에 대한 전망

실업 문제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③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④ 다소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3>과 같다.

결과는 ‘다소 비관적이다’라는 문항이 34.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매우 비관적이다’ 문항이 28.8%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실업 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장래 취업의 어려움을 전망하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변인들에 대해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해 비관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3> 실업 문제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5 100.00				35 3.74	99 10.59	212 22.67	320 34.22	269 28.77
성별	남학생	515 55.08	13.6525	4	** 0.0085	28 2.99	58 6.20	125 13.37	168 17.97	136 14.55
	여학생	420 44.92				7 0.75	41 4.39	87 9.30	152 16.26	133 14.22

** : p < .01

(바) 과소비 풍조 개선에 대한 전망

과소비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③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④ 다소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결과는 ‘다소 비관적이다’ 문항이 33.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매우 비관적이다’ 문항이 33.4%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학생 대부분이 과소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현 거주지별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현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거주지가 제주시, 북제주군의 경우는 ‘다소 비관적이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거주지가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경우는 ‘매우 비관적이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4> 과소비 문제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4 100.00				48 5.14	69 7.39	191 20.45	314 33.62	312 33.40
현 거 주 지	제주시	491 52.57	21.3407	12	* 0.0456	15 1.61	38 4.07	109 11.67	165 17.67	164 17.56
	서귀포시	274 29.34				19 2.03	15 1.61	53 5.67	87 9.31	100 10.71
	남제주군	104 11.13				7 0.75	9 0.96	19 2.03	34 3.64	35 3.75
	북제주군	65 6.96				7 0.75	7 0.75	10 1.07	28 3.00	13 1.39

* : p < .05

(사) 환경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③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④ 다소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결과는 ‘다소 비관적이다’ 문항이 32.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매우 비관적이다’ 문항도 31.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 학생들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 대해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5> 환경 문제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4 100.00				53 5.67	90 9.64	191 20.45	303 32.44	297 31.80
성별	남학생	513 54.93	10.5178	4	* 0.0326	36 3.85	58 6.21	105 11.24	150 16.06	164 17.56
	여학생	421 45.07				17 1.82	32 3.43	86 9.21	153 16.38	133 14.24

*: p<.05

(아) 복지 사회 건설

복지 사회 건설 문제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③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④ 다소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결과는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문항이 33.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소 비관적이다’ 문항이 24.2%로 그 뒤를 이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다소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6> 복지 사회 건설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3 100.00				80 8.57	180 19.29	311 33.33	226 24.22	136 14.58
성별	남학생	512 54.88	13.9149	4	** 0.0076	55 5.89	106 11.36	170 18.22	105 11.25	76 8.15
	여학생	421 45.12				25 2.68	74 7.93	141 15.11	121 12.97	60 6.43

** : p<.01

(자) 사회 문제(범죄, 폭력)

사회 문제(범죄, 폭력)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③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④ 다소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결과는 ‘매우 비관적이다’ 문항이 31.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소 비관적이다’ 문항이 30.3%로 그 뒤를 이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범죄, 폭력 등과 같은 사회 문제의 해소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낙관적인 경향을 다소 높게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27> 사회 문제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4 100.00				48 5.14	88 9.42	219 23.45	283 30.30	296 31.69
성별	남학생	513 54.93	17.6353	4	** 0.0015	40 4.28	49 5.25	118 12.63	144 15.42	162 17.34
	여학생	421 45.07				8 0.86	39 4.18	101 10.81	139 14.88	134 14.35

** : p<.01

(차) 정치적 안정

정치적 안정에 대한 문항으로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③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④ 다소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8>과 같다.

결과는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라는 문항이 30.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소 비관적이다’ 문항이 23.6%, ‘매우 비관적이다’ 문항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정치적 안정에 대해 낙관적인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아버지 학력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의 경우 ‘매우 비관적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아버지 학력이 고졸이상의 경우는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와 ‘다소 비관적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8> 정치적 안정에 대한 전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6 100.00				69 7.37	164 17.52	284 30.34	221 23.61	198 21.15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83 8.87	18.9777	8	* 0.0150	5 0.53	20 2.14	20 2.14	15 1.60	23 2.46
	고졸	488 52.14				29 3.10	71 7.59	168 17.95	122 13.03	98 10.47
	전문대 이상	365 39.00				35 3.74	73 7.80	96 10.26	84 8.97	77 8.23

*: p<.05

2. 경제생활관

1) 한 달에 저축하는 정도

학생들이 한 달에 저축하는 정도에 대한 실태는 <표 29>와 같다.

<표 29> 월 저축 정도에 대한 실태

저축액	도 수	백분율(%)
저축하지 않음	530	56.20
5,000원 미만	82	8.70
5,000원 ~ 10,000원 미만	81	8.59
10,000원 ~ 15,000원 미만	170	18.03
15,000원 ~ 20,000원 이하	80	1.60
합 계	943	8.48

저축을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56.2%로 나타났고, 저축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4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건전한 저축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한 달에 평균 저축하는 정도

(단위: 원)

도 수(N)	평균	표준 편차
943	4067.02	6224.67

학생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저축하는 액수는 약 4,000원으로 나타났다.

2) 여가 활용

방과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러한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경제생활의 한 중요한 부분인 여가 생활이 얼마나 건전하고 합리적인가의 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매주 인터넷, 채팅 등을 하는 시간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인터넷, 채팅 등을 하는 시간에 대한 실태는 <표 30>과 같다.

<표 30> 매주 인터넷, 채팅 등을 하는 시간에 대한 실태

인터넷, 채팅 등에 사용하는 시간	도 수	백분율
5시간 미만	514	54.51
5시간 ~ 10시간	195	20.68
10시간 ~ 20시간	143	15.16
20시간 ~ 30시간	54	5.73
30시간 이상	37	3.92
합 계	943	100.00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인터넷, 채팅 등을 평균적으로 하는 시간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주당/시간)

도 수(N)	평균	표준 편차
943	6.811240	9.299704

학생들이 일주일동안 인터넷, 채팅 등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약 7시간으로 나타났다.

(2) PC방 등 오락실 이용

학생들이 한 달 동안 PC방 등 오락실 이용에 대한 실태는 <표 31>과 같다.

<표 31> 오락실 이용 실태

한달 PC방 등 오락실 이용	도 수	백분율(%)
5번 미만	803	85.15
5번 ~ 10번 미만	72	7.64
10번 ~ 15번 미만	32	3.39
15번 ~ 20번 미만	9	0.95
20번 ~ 25번 미만	11	1.17
25번 ~ 30번 이하	16	1.70
합 계	943	100.00

한달 평균 PC방 등 오락실 이용 횟수

(단위: 한 달/횟수)

도 수(N)	평 균	표준 편차
943	2.3255567	4.8793353

학생들이 한 달 동안 PC방 등 오락실을 이용하는 횟수는 약 2회로 나타났다.

(3) PC방 등 오락실 이용액

<표 32> PC방 등 오락실 이용액 실태

한달 PC방 등 오락실 이용액	도 수	백분율(%)
1,000원 미만	552	58.54
1,000원 ~ 5,000원 미만	244	25.87
5,000원 ~ 10,000원 미만	89	9.44
10,000원 ~ 15,000원 미만	39	4.14
15,000원 ~ 20,000원 이하	19	2.01
합 계	943	100.00

한달 평균 PC방 등 오락실 이용 액수

(단위: 한 달/원)

도 수(N)	평균	표준 편차
943	1956.42	3594.83

학생들이 한 달 동안 PC방 등 오락실을 이용하는 액수는 약 2,000원으로 나타났다.

(4) TV, 비디오 시청

학생들이 매주 TV, 비디오 시청을 하는 시간에 대한 정도는 <표 33>과 같다.

<표 33> 매주 TV, 비디오 시청 시간에 대한 실태

매주 TV, 비디오 시청	도 수	백분율(%)
5시간 미만	377	39.98
5시간 ~ 10시간 미만	196	20.78
10시간 ~ 15시간 미만	155	16.44
15시간 ~ 20시간 미만	55	5.83
20시간 ~ 25시간 미만	100	10.60
25시간 ~ 30시간 이하	60	6.36
합 계	943	100.00

한달 평균 PC방 등 오락실 이용 시간

(단위: 매주/시간)

도 수(N)	평균	표준 편차
943	8.6967126	8.2534018

학생들이 매주 TV, 비디오 시청을 하는 평균 시간은 약 9시간으로 나타났다.

(5) 군것질 및 사용액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 군것질을 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액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매주/원)

도 수(N)	평균	표준 편차
943	1115.23	1858.62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평균 TV 시청 시간과 인터넷, 채팅 등을 하는 시간이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을 학업에만 할애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비교적 수동적이고 덜 생산적인 TV 시청과

컴퓨터에만 많이 할애한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3) 직업관

직업관이란 개인이나 사회가 일 또는 지위에 대해 지니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직업 생활은 경제 생활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표 34> 좋은 직업, 좋은 직장에 대한 견해

좋은 직업 혹은 좋은 직장	전 체
수입이 많은 것	600
안정된 직장	752
근무시간이 짧은 것	102
승진의 기회가 많은 것	67
자기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것	673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	160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을 할 수 있는 것	71
권력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40
자유재량권이 많은 것	131

“좋은 직업” 혹은 “좋은 직장”에 대한 생각은 안정된 직장이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 다음으로 자기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수입이 많은 것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대상 학생들은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을 할 수 있는 것’ 등에는 다소 낮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최근에 어렵고 땀흘리는 일을 기피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감안할 때,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것이 아닌가 한다.

<표 35> 직장 취업 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에 대한 견해

취업 시 영향력이 가장 큰 것	전 체
최종학력	615
졸업한 학교의 명성	292
최종학교 성적	260
기술자격증	467
교사의 추천서	77
선배의 힘	41
친척의 도움	53
부모의 도움	78
입사시험의 성적	224
면접시험	409
용모	214

“취업 시 영향력이 가장 클 것”에 대한 생각은 최종학력이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 다음으로 기술자격증, 그리고 면접시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취업은 본인이 노력이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4) 결혼관

결혼이나 배우자 선택과 같은 문제는 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직은 막연히 느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생각은 이들의 경제생활관을 또 다른 각도에서 엿볼 수 있게 하여 준다.

<표 36> 배우자 선택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견해

배우자 선택시 가장 중요한 점	전 체
교육정도	162
직업	420
맞벌이가 가능한지의 여부	59
가정환경	263
부모의 재산	79
부모의 사회적 지위	31
출신지역	19
종교	62
용모	437
건강	454
성격	753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한 생각은 ‘성격’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건강’, 그리고 ‘용모’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99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경제가치관 조사연구’ 중 본 질문문항과 관련이 있는 문항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배우자선택시 고려사항으로 성격, 건강, 가정환경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고 보인다.²³⁾

조사 대상 학생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 혹은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배우자 개인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더 중요시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 임천순 외 2인(1990), 전게서, pp.103~104.

5) 경제적 자립관

“부모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으로 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③ 취직할 때까지 ④ 결혼할 때까지 ⑤ 결혼 이후라도 가능하면 언제까지나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7>과 같다.

결과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문항이 46.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문항이 30.8%로 그 뒤를 이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월 평균 소득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37>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에 대한 견해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9 100.00				438 46.65	289 30.78	90 9.58	66 7.03	56 5.96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8 14.70	21.3493	21	* 0.0455	76 8.09	33 3.51	11 1.17	12 1.28	6 0.64
	100만원 ~ 200만원	364 38.76				180 19.17	108 11.50	32 3.41	20 2.13	24 2.56
	200만원 ~ 300만원	274 29.18				116 12.35	86 9.16	32 3.41	27 2.88	13 1.38
	300만원 이상	163 17.36				66 7.03	62 6.60	15 1.60	7 0.75	13 1.38

*: p<.05

6) 소비자관

(1) 대기업 상표에 대한 인식

“대기업의 유명상표가 붙은 상품은 그렇지 않은 물건보다 질이 좋다”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다소 반대 ④ 매우 반대 ⑤ 잘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8>과 같다.

결과는 ‘다소 찬성’ 문항이 43.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소 반대’ 문항이 23.8%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유명 상표와 상품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보호자 직업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보호자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의 경우는 나머지 보호자 직업에 비해 ‘다소 찬성’의 비율이 조금 낮게 나타났고, ‘다소 반대’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38> 대기업의 유명상표에 대한 견해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2 100.00				106 11.25	409 43.42	224 23.78	59 6.26	144 15.29
보호 자 직 업	공무원 (교사 포함)	170 18.05	30.4783	16	* 0.0157	16 1.70	62 6.58	48 5.10	14 1.49	30 3.18
	회사원	176 18.68				28 2.97	85 9.02	39 4.14	7 0.74	17 1.80
	상업 (서비스업 포함)	368 39.07				41 4.35	161 17.09	89 9.45	29 3.08	48 5.10
	농·수산업 (노동 포함)	198 21.02				18 1.91	91 9.66	38 4.03	8 0.85	43 4.56
	무직	30 3.18				3 0.32	10 1.06	10 1.06	1 0.11	6 0.64

* : $p < .05$

(2) 수입상품과 국산품간의 질 비교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은 국산품보다 질이 좋다”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다소 반대 ④ 매우 반대 ⑤ 잘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9>와 같다.

결과는 ‘다소 반대’ 문항이 32.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매우 반대’ 문항이 24.6%, ‘다소 찬성’ 문항이 20.7%로 나타났다. 수입 상품이 국내 생산 상품의 질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 보호자 직업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다소 찬성’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매우 반대’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보호자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 직업이 회사원의 경우는 나머지 직업에 비해 ‘다소 찬성’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 상업(서비스업 포함)의 경우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9> 수입상품과 국산품간의 질 비교에 관한 견해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9 100.00				43 4.58	194 20.66	301 32.06	231 24.60	170 18.10
성별	남학생	514 54.74	22.6467	4	*** 0.0001	26 2.77	132 14.06	165 17.57	109 11.61	82 8.73
	여학생	425 45.26				17 1.81	62 6.60	136 14.48	122 12.99	88 9.37
보호자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0 18.10	27.0664	16	* 0.0408	13 1.38	31 3.30	49 5.22	48 5.11	29 3.09
	회사원	175 18.64				9 0.96	42 4.47	68 7.24	32 3.41	24 2.56
	상업(서비스업 포함)	366 38.98				12 1.28	79 8.41	102 10.86	104 11.08	69 7.35
	농·수산업(노동 포함)	198 21.09				7 0.75	38 4.05	74 7.88	39 4.15	40 4.26
	무직	30 3.19				2 0.21	4 0.43	8 0.85	8 0.85	8 0.85

*: p<.05, ***: p<.001

(3) 백화점 상품과 시장 상품과의 질 비교

“백화점의 상품이 일반 시장의 상품보다 질이 좋다”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다소 반대 ④ 매우 반대 ⑤ 잘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0>과 같다.

결과는 ‘다소 반대’ 문항이 31.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소 찬성’ 문항이 27.7%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조사 대상자가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의 가격과 질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0> 백화점의 상품과 시장 상품과의 질 비교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1 100.00				74 7.86	261 27.74	298 31.67	111 11.80	197 20.94

(4) 상품의 가격과 질 비교

“가격이 비싼 상품은 가격이 싼 상품보다 질이 좋다”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다소 반대 ④ 매우 반대 ⑤ 잘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결과는 조사 대상자의 38.5%가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43.4%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상당수의 학생이 상품 가격과 질 간에는 상관 관계가 없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준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보호자 직업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현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거주지가 제주도,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경우 ‘다소 찬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거주지가 서귀포시의 경우는 ‘다소 반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의 경우는 ‘다소 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아버지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는 ‘다소 반대’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의 경우는 ‘다소 반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보호자 직업이 회사원 등의 나머지 직업의 경우는 ‘다소 찬성’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41> 상품 가격과 품질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3 100.00				89 9.44	274 29.06	266 28.21	144 15.27	170 18.03
현거주지	제주시	497 52.70	22.7797	12	* 0.0297	44 4.67	158 16.76	146 15.48	78 8.27	71 7.53
	서귀포시	277 29.37				29 3.08	69 7.32	81 8.59	43 4.56	55 5.83
	남제주군	104 11.03				8 0.85	26 2.76	23 2.44	14 1.48	33 3.50
	북제주군	65 6.89				8 0.85	21 2.23	16 1.70	9 0.95	11 1.17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86 9.12	17.5558	8	* 0.0248	9 0.95	22 2.33	17 1.80	15 1.59	23 2.44
	고졸	490 51.96				54 5.73	144 15.27	139 14.74	61 6.47	92 9.76
	전문대 이상	367 38.92				26 2.76	108 11.45	110 11.66	68 7.21	55 5.83
보호자 직업	공무원 (교사 포함)	171 18.13	37.0110	16	** 0.0021	15 1.59	41 4.35	54 5.73	40 4.24	21 2.23
	회사원	176 18.66				20 2.12	57 6.04	56 5.94	24 2.55	19 2.01
	상업(서비스업 포함)	368 39.02				30 3.18	112 11.88	101 10.71	51 5.41	74 7.85
	농·수산업(노동 포함)	198 21.00				18 1.91	53 5.62	50 5.30	26 2.76	51 5.41
	무직	30 3.18				6 0.64	11 1.17	5 0.53	3 0.32	5 0.53

*: p<.05, **: p<.01

3.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1) 취업

“취업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②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③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④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⑤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결과는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문항이 49.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상당수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 취업 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인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1 100.00				128 13.60	469 49.84	166 17.64	53 5.63	125 13.28
성별	남학생	515 54.73	21.1561	4	*** 0.0003	90 9.56	253 26.89	74 7.86	33 3.51	65 6.91
	여학생	426 45.27				38 4.04	216 22.95	92 9.78	20 2.13	60 6.38

***: p<.001

2)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이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이해”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②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③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④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⑤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결과는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문항이 46.4%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중학교 교육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 보호자의 직업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호자의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 회사원의 경우 보호자의 직업이 다른 직업의 경우에 비해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이해에 대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인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0 100.00				143 15.21	436 46.38	168 17.87	47 5.00	146 15.53	
성별	남학생	515 54.79	10.7339	4	*	0.0297	94 10.00	231 24.57	90 9.57	29 3.09	71 7.55
	여학생	425 45.21					49 5.21	205 21.81	78 8.30	18 1.91	75 7.98
보호자 직업	공무원(교사 포함)	171 18.19	32.8418	16	**	0.0078	33 3.51	74 7.87	33 3.51	7 0.74	24 2.55
	회사원	175 18.62					27 2.87	89 9.47	18 1.91	17 1.81	24 2.55
	상업(서비스업 포함)	367 39.04					50 5.32	172 18.30	71 7.55	19 2.02	55 5.85
	농·수산업(노동 포함)	197 20.96					25 2.66	93 9.89	38 4.04	4 0.43	37 3.94
	무직	30 3.19					8 0.85	8 0.85	8 0.85	0 0.00	6 0.64

*: $p < .05$, **: $p < .01$

3) 경제 현안 및 문제의 이해

“경제 현안이나 문제의 이해”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②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③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④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⑤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결과는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문항이 38.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 아버지 학력, 월 평균 소득, 생활비 소득자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의 응답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아버지 학력이 고졸의 경우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 비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 소득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혼자 버는 경우는 맞벌이, 어머니 혼자, 기타의 경우에 비해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4> 경제 현안이나 문제의 이해에 대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인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4 100.00				98 10.49	362 38.76	213 22.81	78 8.35	183 19.59
성별	남학생	512 54.82	10.0080	4	* 0.0403	66 7.07	200 21.41	118 12.63	40 4.28	88 9.42
	여학생	422 45.18				32 3.43	162 17.34	95 10.17	38 4.07	95 10.17
아버지	중졸이하	83 8.89	24.9498	8	** 0.0016	6 0.64	28 3.00	22 2.36	5 0.54	22 2.36
	고졸	488 52.25				47 5.03	207 22.16	102 10.92	28 3.00	104 11.13
학력	전문대 졸업이상	363 38.87				45 4.82	127 13.60	89 9.53	45 4.82	57 6.10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136 14.56	32.3703	12	** 0.0012	21 2.25	47 5.03	28 3.00	10 1.07	30 3.21
	100만원~200만원	363 38.87				30 3.21	152 16.27	82 8.78	18 1.93	81 8.67
	200만원~300만원	274 29.34				29 3.10	106 11.35	72 7.71	23 2.46	44 4.71
	300만원 이상	161 17.24				18 1.93	57 6.10	31 3.32	27 2.89	28 3.00
생활비	아버지 혼자	272 29.12	23.9265	12	* 0.0208	28 3.00	84 8.99	70 7.49	31 3.32	59 6.32
	맞벌이	568 60.81				57 6.10	237 25.37	128 13.70	42 4.50	104 11.13
소득자	어머니 혼자	54 5.78				9 0.96	24 2.57	12 1.28	1 0.11	8 0.86
	기타	40 4.28				4 0.43	17 1.82	3 0.32	4 0.43	12 1.28

*: p<0.5, **: p<0.1

4) 합리적인 소비 생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②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③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④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⑤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결과는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문항이 41.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교육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 아버지 학력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응답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으나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는 응답 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의 경우는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의 경우에 비해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은 반면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는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의 경우보다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표 45> 합리적인 소비 생활 영위에 관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인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41 100.00				138 14.67	389 41.34	182 19.34	83 8.82	149 15.83
성별	남학생	514 54.62	18.7592	4	*** 0.0009	98 10.41	199 21.15	99 10.52	45 4.78	73 7.76
	여학생	427 45.38				40 4.25	190 20.19	83 8.82	38 4.04	76 8.08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86 9.14	16.1126	8	* 0.0408	12 1.28	28 2.98	21 2.23	6 0.64	19 2.02
	고졸	490 52.07				65 6.91	220 23.38	88 9.35	35 3.72	82 8.71
	전문대 졸업이상	365 38.79				61 6.48	141 14.98	73 7.76	42 4.46	48 5.10

***: p<.001

5) 문화 생활 영위

“문화생활 영위”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②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③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④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⑤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6>과 같다.

결과는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문항이 43.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교육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응결과를 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월 평균 소득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보다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은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6> 문화 생활 영위에 대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인식

변인	구분	구성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931 100.00				141 15.15	404 43.39	144 15.47	71 7.63	171 18.37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36 14.61	22.9578	12	* 0.0281	24 2.58	46 4.94	16 1.72	12 1.29	38 4.08
	100만원 ~ 200만원	361 38.78				53 5.69	173 18.58	49 5.26	19 2.04	67 7.20
	200만원 ~ 300만원	273 29.32				40 4.30	116 12.46	50 5.37	25 2.69	42 4.51
	300만원 이상	161 17.29				24 2.58	69 7.41	29 3.11	15 1.61	24 2.58

*: p<.05

V.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중3학생들의 경제가치관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개인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둘째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셋째 저축 및 여가활용 실태와 직업관, 결혼관, 경제적 자립관, 소비자관을 포함하는 경제생활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활에 필요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반응을 환경적 배경 즉, 성별, 거주지별, 보호자의 교육정도, 가족의 수입, 보호자의 직업, 생활비 소득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에서는 중3학생들이 자신이 처해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경제현실을 보는 눈이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를 분석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그저 그렇다’를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한다면 경제적 현실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보호자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의 경우, 보호자의 직업이 공무원(교사 포함)인 가정의 자녀가 그 외의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미래관에서는 자신들이 처하게 될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인지 혹은 비관적인지 조사하였다. 중3학생들은 자신이 처하게 될 미래의 ‘경제상황’과 ‘경제적 안정’의 문항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직장 취업’에 있어서는 64.2%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배경변인별로는 보호자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위 획득’에서는 낙관과 비관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학력 실업난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을 나이 어린 중학생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에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노력과 출세’, ‘경제적 성공’의 중요 요소로 ‘개인의 노력’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 학생들의 59%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공헌 집단’으로 근로자를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25%), 정부(13%), 외국원조(3%)를 들었다. 배경변인별로는 보호자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와 월소득 100만원 이상의 경우 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율 외에 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빈곤 계층 존속에 대한 책임’으로는 과반수가 정부에 귀속시키려 하고 있었다.

넷째,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미래관에서 조사 대상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미래 경제 발전’, ‘복지 사회 건설’ 등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 환경오염, 과소비, 부동산투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우려를 대변해 준다고 본다.

다섯째, 경제생활관에서 저축생활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학생의 44%정도가 저축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저축하는 액수는 약 4,000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여가 활용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인터넷, 채팅 등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약 7시간이고 한 달 동안 PC방 등 오락실 이용횟수는 약 2회로 나타났다. 오락실을 이용하는 액수는 약 2,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매주 TV, 비디오 시청을 하는 평균 시간은 약 9시간으로 나타났다. 군것질 및 사용액은 평균 하루에 한번 군것질을 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액수는 1,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직업관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들이 중시하는 직업 선택의 기준과 우리나라에서 취업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좋은 직업에 대한 생각은 안정된 직장이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 다음으로는 자기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수입이 많은 것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시 영향력이 가장 클 것에 대한 생각은 최종학력이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 다음으로 기술자격증, 면접시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에서 ‘배우자 선택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한 생각은 성격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건강, 용모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관에서는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대기업 상품이 다른 곳의 상품보다 질이 우수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수입 상품이 국산품보다 질이 좋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반 시장의 상품보다 백화점 상품이 질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상품의 가격과 질 간에는 상관 관계가 없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제생활 영위에 필요한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역에 대하여 긍정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각 영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긍정적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시(63.4%),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이해(61.6%), 문화생활 영위(58.5%), 합리적인 소비생활(56%), 경제 현안 및 문제의 이해(49.3%)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배경변인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학생들은 거의 전 영역에서 중학교 교육이 자신의 경제와 관련된 생활 영역에서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소비생활, 경제 현안 및 문제의 이해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영역들과 관련된 중학교에서의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제주도 중3학생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경제적 현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제주도 중3학생들은 거의가 미래 지향적인 경제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관과 미래관에서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빈곤 계층 존속의 원인이나 가난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고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미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반면, 사회문제의 미래상은 매우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경제생활관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관에 있어서 대기업 제품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합리적인 태도가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상당수가 자신의 경제와 관련된 생활 영역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나, 경제 현안 및 문제의 이해의 부분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비율이 낮았다.

제주도 중3학생들의 경제가치관 조사 결과가 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가치관이나 의식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날 내용 요소의 선정이 학생들의 가치관 및 의식 수준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일인 동시에 경제 교육 교수·학습 활동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경제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학교 경제 교육에서 소비생활 혹은 경제 현안 및 문제의 이해 교육 등을 포함한 실생활 위주의 교육 내용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경제 사회 영역과 연관을 맺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나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의 정치 사회 체제가 안고 있는 주된 문제들이 미래 사회에도 지속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학교에서 경제가치관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중학생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노사문제, 빈부격차, 물가 안정, 부동산 투기, 과소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현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경제교육을 통한 경제가치관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학교교육과정에서 경제 관련 교육은 3학년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며 그 내용도 주요 경제개념을 피상적으로 배우는데 그치고 있다. 3학년 4단위를 국사와 사회부문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경제 부문에 할애된 시수는 사회의 2단위에서 7할 정도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시장경제원리나 복잡 다기한 경제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 지식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참고 문헌

1. 한국문헌

《단행본》

- 강영선 외(1988), 「세계철학대사전」, 교육출판공사.
김인회(1994), 「한국인의 가치관 : 무속과 교육철학」, 문음사.
남덕우(2002), 「(전문가 10인의)한국경제를 보는 눈」, 삼성경제연구소.
박진근(1999), 「경제학 대사전」, 박영사.
박희섭(1986),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청소년지도육성회.
임천순, 정태화, 이광호(1990), 「청소년의 경제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정범모(1973), 「가치와 가치관」, 배영사.
정세구(1988), 「가치·태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영문사.
정원식(1975),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차경수(1996), 「현대의 사회과교육」, 학문사.
한국철학사상연구회(1994), 「철학대사전」, 동녘.

《논문》

- 강장규(2001), “중학생의 경제의식 조사를 통한 경제교육 방안 연구”, 천안대학교.
강태준(1992), “초등학교 학생의 경제가치관 연구”, 인하대학교.
곽영길(1988), “고등학생의 경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김병직(2000), “청소년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김재성(2001), “청소년 소비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김창영(1994), “고교생의 경제가치관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재근(1992), “중학생의 소비행태와 교과서 소비단원 내용의 비교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종복(1993), “국민학생의 소비행태분석과 소비자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신광숙(1990), “고등학교 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안영익(1992), “제주도 고등학생의 가치관”, 제주대학교.
안진모(1995), “국교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이영수(1998), “중학생 소비의식 및 행태 조사연구”, 경성대학교.

- 이용수(1974),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제 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주영(1997), “신세대의 소비행태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이희구(1991), “중학생의 경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임영신(1994), “제주도 국민학생의 경제의식 조사”, 제주대학교.
최용희(1990), “고등학생의 경제가치관 연구”, 원광대학교.

《 기 타 》

- 이재웅(1987), “한국 경제의 현실과 경제교육의 과제”, 「고등학교 경제교육
연수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전국경제인연합회(1988), 「국민 경제의식 동향 조사」.

2. 서양문헌

Newcomb, T. M.(1965), *Social psychology*, Hort, Rinehart & Winston.

Rockeach, M.(1969),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Jossey-Bass.

<Abstract>

A Study on the Sense of Economic Value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Jeju

Yang young-hee

Soci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South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 Park, Yong-kyung

The aim of this study grasped the sense of the economic value with the thi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in Jeju, and provided the basic materia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middle school education and the consultation of the development for the several learning materials.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about 1,120 third grade students in living Jeju city, Seogwipo city, Namjejugun, Pukjejugun, made up a question and analyzed the result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called SAS V8.1.

First, the third grade students in Jeju showed very positive recognition toward the economic conditions in their surroundings and analyzed a little positive reaction toward the future economic conditions.

Second, Students had the progressive thoughts on the realistic view and the future view toward the economic conditions in our society, but had the negative thoughts owing to the governmental role toward the 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poverty class and the responsibility of poverty.

Third, Students had the optimistic though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uture in Korea, but took a pessimistic view on the social problems image of the future.

Fourth, a large number of students showed the irrational view of the economic life. Many students unconditionally had good thoughts on the manufactured products made in the large company, but this were a little short of the rational attitude toward the sense of the consumer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Fifth,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ents were helpful to the usefulness of the middle school social education, but showed low ratio on the economic questions and understanding economic questions.

Consequently the third grade students in Jeju had both positive economic view and negative side awareness. So school authorities run systematic curriculum and reinforce the education of economic value to achieve the desirable economic value. Also students were short of the rational view of the consumers and reinforce the education of consumers in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for social education.

부록

경제가치관 조사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제주도 중학생의 경제가치관 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경제가치관 형성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경제가치관을 조사·분석한 후에 향후 중학교 교육의 개선과 각종 학습 자료의 개발에 참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기분에 ‘조금 더 가까운 것’에 √표를 하시면 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결과는 연구용으로만 활용될 뿐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 조사 결과가 중학교 교육 내용의 개선에 필요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003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양 영 희

1. 성 별

___(1) 남 ___(2) 여

2.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3. 현 거주지

(1) 제주시() (2) 서귀포시()
(3) 남제주군() (4) 북제주군()

4. 아버지(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교육 정도

___(1) 중졸이하 ___(2) 고졸 ___(3) 전문대졸 이상

5. 아버지나 가장의 월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수입을 평균하여 합해 주십시오.

___(1) 100만원 이하
___(2) 100만원~200만원
___(3) 200만원~300만원
___(4) 300만원 이상

6. 보호자의 직업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___(1) 공무원(교사 포함) ___(2) 회사원
___(3) 상업(서비스업 포함) ___(4) 농·수산업(노동포함)
___(5) 무직

7. 우리 집은 누가 돈을 벌어 생활합니까?

___(1) 아버지 혼자 ___(2) 부모 모두 맞벌이
___(3) 어머니 혼자 ___(4) 기타

I. 개인과 가정의 경제상황(여건)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현실관

1. 학생의 가정이 현재 처해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1) 매우 만족스럽다 ___(2) 약간 만족스럽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약간 불만스럽다
___(5) 매우 불만스럽다

2. 학생의 가정이 현재 처해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1) 매우 만족스럽다 ___(2) 약간 만족스럽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약간 불만스럽다

(5) 매우 불만스럽다

3. 학생의 가정이 처해 있는 생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2) 약간 만족스럽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불만스럽다

(5) 매우 불만스럽다

미래관

4. 경제적인 면에서 학생의 가정의 미래는 지금의 상태보다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크게 나아질 것이다

(2) 비교적 나아질 것이다

(3)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4)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5)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5. 학생의 가정의 미래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안하다

(2) 조금 불안하다

(3) 거의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중요하지 않다

6. 학생의 미래에 있어서 원하는 직장 취업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안하다

(2) 조금 불안하다

(3) 거의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중요하지 않다

7. 학생은 미래에 언젠가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1) 매우 자신이 있다

(2) 매우 자신이 없다

(3) 어느 정도 자신 있다

(4) 잘 모르겠다

(5) 다소 자신이 없다

8. 학생의 미래에 있어서 원하는 사회적 지위 획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안하다

(2) 조금 불안하다

(3) 거의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중요하지 않다

II. 사회의 경제상황(여건)에 대한 현실관 및 미래관

현실관

9. '우리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출세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동의한다

(2) 약간 동의한다

(3) 다소 동의 안한다

(4) 전혀 동의 안한다

(5) 모르겠다

10.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2) 학연과 지연

(3) 본인의 노력

(4) 부모·친척의 정치적 배경

(5) 기타(간략히 적어주십시오) :

11.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주체는 누구(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업

(2) 근로자

(3) 정부

(4) 외국 원조

12. 우리나라가 과거 40년 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으면서도 아직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본인

(2) 가족

(3) 조상(친척)

(4) 직장

(5) 지역사회

(6) 정부

미래관

13.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낙관적임
- (2) 다소 낙관적임
- (3) 낙관도 비관도 아님
- (4) 다소 비관적임
- (5) 매우 비관적임

14.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문제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낙관적이다	어느 정도 낙관적이다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다소 비관적이다	매우 비관적이다
(1) 노사문제	()	()	()	()	()
(2) 빈부격차	()	()	()	()	()
(3) 물가 안정	()	()	()	()	()
(4) 부동산 투기	()	()	()	()	()
(5) 실업 문제	()	()	()	()	()
(6) 과소비	()	()	()	()	()
(7) 환경 문제	()	()	()	()	()
(8) 복지사회 건설	()	()	()	()	()
(9) 사회문제 (범죄, 폭력)	()	()	()	()	()
(10) 정치적 안정	()	()	()	()	()

III. 경제생활관

저축 및 여가 활동 실태

15. 학생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축하십니까?

약 _____ 원

16. 다음과 같은 활동에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을 할애합니까?(해당 사항만 적어주십시오.)

활동 유형	시간(횟수)	돈
(1) 인터넷, 챗팅 등	(매주) 시간	원
(2) PC방 등 오락실 이용	(매월) 회	원
(3) TV, 비디오 시청	(매주) 시간	
(4) 군것질	(매일) 회	원

직업관

17. 학생은 ‘좋은 직업’ 혹은 ‘좋은 직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가지만 고르십시오.)

- (1) 수입이 많은 것
- (2) 안정된 직장(실업 및 도산의 위험이 없는 것)
- (3) 근무 시간이 짧은 것
- (4) 승진의 기회가 많은 것
- (5) 자기의 능력(혹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것
- (6)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
- (7) 육체노동 보다 정신노동을 할 수 있는 것
- (8) 권력·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 (9) 자유 재량권이 많은 것

18.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취업할 때 다음의 사항들 중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가지만 고르십시오.)

- (1) 최종 학력
- (2) 졸업한 학교의 명성
- (3) 최종학교 성적
- (4) 기술자격증
- (5) 교사의 추천서
- (6) 선배의 힘
- (7) 친척의 도움
- (8) 부모의 도움
- (9) 입사시험의 성적
- (10) 면접시험
- (11) 용모(인상)

결혼관

19. 학생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하겠습니까?(3가지만 고르십시오.)

- | | |
|----------------------|-------------------|
| ___(1) 교육 정도 | ___(2) 직업 |
| ___(3) 맞벌이가 가능한지의 여부 | ___(4) 가정 환경 |
| ___(5) 부모의 재산 | ___(6) 부모의 사회적 지위 |
| ___(7) 출신 지역 | ___(8) 종교 |
| ___(9) 용모 | ___(10) 건강 |
| ___(11) 성격 | |

경제적 자립관

20. 부모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1)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 ___(2)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 ___(3) 취직할 때까지
- ___(4) 결혼할 때까지
- ___(5) 결혼 이후라도 가능하면 언제까지나

소비자관

21. 상품 구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표로 하여 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모르겠다
(1) 대기업의 유명상표가 붙은 상품은 그렇지 않은 물건보다 질이 좋다	()	()	()	()	()
(2)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은 국산품보다 질이 좋다	()	()	()	()	()
(3) 백화점의 상품이 일반 시장의 상품보다 질이 좋다	()	()	()	()	()
(4) 가격이 비싼 상품은 가격이 싼 상품보다 질이 좋다	()	()	()	()	()

IV. 중학교 교육의 유용성

22.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중학교교육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큰 도움을 준다	다소 도움을 준다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모르겠다
(1) 취업하는데	()	()	()	()	()
(2)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이해	()	()	()	()	()
(3) 경제 현안이나 문제의 이해	()	()	()	()	()
(4) 합리적인 소비 생활	()	()	()	()	()
(5) 문화생활 영위	()	()	()	()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